

“가장 어울리는 맞춤안경 찾아 드려요”

군산대 조선공학과 4학년 고승완씨, 국제 실습기업 스타트업 경진대회서 혁신상 수상

“우리나라의 안경인은 전 국민의 46%나 될 정도로 많아요. 안경점을 찾아가 제품을 고르지만 디자인을 맘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이 많지요. 직접 방문에 따른 교통 불편, 시간 소요 등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구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같은 불편과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았지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제 실습기업(Practice Enterprise)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혁신상(엑셀런스 어워드, Excellence Award)을 받은 군산대 조선공학과 4학년 고승완(27)씨는 “세계 안경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야망을 가진 젊은이다. 코리아렌과 유로렌-렌 인터내셔널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대학에서 15개 팀이 참가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호평을 받은 고씨의 수상작은 ‘아이즈 헬퍼(Eyes Helper)’.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안경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다. 얼굴 사진을 어플에 올려놓고 안경의 다양한 디



자인과 색깔을 썬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장기적으로 컴퓨터가 얼굴과 안경 디자인의 최적

조합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를 제 경험에서 얻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력이 0.3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중고교 시절 뒷자리에서 칠판을 쳐다볼 때 외에는 안경을 안착했어요. 지금도 야간 운전할 때만 끼고, 안경을 쓰면 얼굴이 뭉개져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지요. 저처럼 안경 디자인에 만족을 못하는 고객들을 돕고 싶어서 생각을 했지요.”

고씨는 도전 정신으로 뚝뚝 뚫힌 대학생이다. 군산대의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전략, 창업시뮬레이션 등 과목을 들으면서 나홀로 창업에 대한 각오와 자신감을 다졌다.

이번에 상을 받은 ‘아이즈 헬퍼’; 개발 외에 지난해 이미 1인 무역회사 ‘밍카오’를 창업했다. 해외 판로가 없는 중소 화장품회사의 수출을 돕는 기업이다. 현재 대만 시장을 두드리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국·일본·홍콩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고씨는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도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며 “취업 걱정을 하는 졸업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에 적극 도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한이 대학원생, 우수구연상 수상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한이 대학원생(박사과정)이 대한소아치과학회 주최로 최근 개최된 ‘대한소아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대학원생은 이번 학회에서 영구치와 유치와 섞여 있는 시구인 ‘혼합치열기’ 어린이의 구순 폐쇄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구순폐쇄력을 측정할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 특성 및 교합과의 관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대학원생은 “어린이가 성장, 발육함에 따라 구강안면근기능도 함께 발달하는데 구호흡 및 치아 위치 등의 문제로 인해 근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진단과 문제 확인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언했다.

한편 이한이 대학원생은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소아치과 학회에서도 치아 이형성 및 전신 이상을 동반하는 질병인 ‘거기부 증후군’ 환자의 치과적 관리에 대한 우수 연구 성과를 발표해 국제 학회서 주목을 받았다.

/정해은 기자

익산시 모현동, 어려운 이웃에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익산시시장, 도·시의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모현동 발전회 관계자 및 봉사자들은 9일 모현동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모현동 발전회가 주관한 이날 연탄봉사는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모현동 복지사각 지대 발굴대상 가구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 관리기구 등 67가구에 총 1천 700장을 전달해 모현동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이날 정현을 시장, 소병홍 시의장을 비롯한 모현동 소속 기관단체와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모현스포터즈들은 연탄 한 장 한 장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배달을 마쳤다.

한편 모현동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연탄 나눔은 지난 10월 20일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이라공고와 노인복지관에서 2천장, 11월 5일에는 모송마을방범대에서 600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새마을회에서 30가구에 6천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후원자들의 손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국회 방문

군산시 제2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및 멘토 등 50여명은 민주주의의 산실인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참관하는 등 민주주의를 바로 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을 직접 만나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뜻깊은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국회 방문으로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져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제2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총 60명(어린이의원 30명, 청소년의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에 발대식을 거쳐 지금까지 매달 회기를 운영하면서(정기회 1회, 임시회 7회)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토론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진로 진학 박람회 개최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고희덕)는 지난 8일 본교 강당(유림관)에서 ‘제1회 진로 진학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진로진학박람회는 군산중앙여고 진로진학상담부 주관으로 실시한 행사로서, 본교 학생 700여 명 정도가 참여했고, 도내 4개 대학과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직업인이 참여하여 40개의 부스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의 장을 마련하고, 한 곳에서 여러 학과 및 직업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박람회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리에 마쳤으며, 내년에는 더욱 보강하여 내실 있는 박람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시 인월초·중, 지리산골 청소년 항공융합인재교육 개최

남원시 인월중학교(교장 배청수) 1학년생과 인월초등학교(교장 하정호) 교학년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지리산골 청소년 항공융합인재교육’이 인월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항공융합인재교육은 창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항공소년단이 진로탐색과 드론체험을 담당했으며, 지리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학생들 간식과 안전지도를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2개 학교와 2개 사회봉사단체가 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한 지역공공융합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주요프로그램은 항공지진로탐색을 항공소년단 최종인 연맹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항공이론, 드론 사진촬영 체험 순으로 이루어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랑의 연탄 후원 봉사활동 나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박순종 부시장, 이하 연구원)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연구원은 9일 전주시 금암동 일대에서 전북지역사업평가단(단장 문성식, 이하 평가단)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후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구원과 평가단은 이날 전주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주연탄은행에 후원하고, 양 기관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영세가정, 조손가정 등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단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연구원과 평가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소재한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순출판)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사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사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사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사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